

專担機關두어 定期的인 弘報필요



李 哲 秀

〈工博·KIST 機械力學研究室長〉

到着後의 研究活動支援問題크게作用

歸國者의 辯 必要한 節次도 代行해줘야

1. 머리말

해외과학자 유치계획에 힘입어 귀국한지 일년된 사람으로 귀국을 전후로 겪은 본인의 경험이 금후 귀국하는 사람, 초청기관 및 정부담당기관들에 혹시 참고될까하여 귀국자의 입장에서 Case History를 소개한다.

물론 본란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를 둔것으로 반드시 귀국과학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것이 아님을 미리 주시킨다.

본 경험담은 편리상 귀국과정을 따라가면서 각과정에서 느낀바를 서술하였고 이를 대별하여 귀국결심과정, 직장의 선택, 이사, 귀국후 연구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이 글을 맺고자 한다.

2. 귀국후 결심 과정

해외로 유학한 사람중 일단 학업을 마친후에서 부터 시작하여 직장생활을 하는동안 영구귀국을 한번쯤 생각해 보지않은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이러한 귀국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인 실현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가지 내외요소들이 상호 적시에 맞아 주어야 되는것 같다. 본인의 경우 대학원을 졸업할 당시 국내 대학과 처음 접촉을 가지고 귀국할것을 고려해 보았었다. 그러나 졸업당시의 심경은 곧 귀국하는것 보다는 미국내의 직장생활을 통한 실무 경험에 대한 욕망이 더욱 크게 작용하였고 또 미국내에서 바라던 직장인 Battlle 연구소에서 Job offer 를 받자 일단 취직을하여 주저않게 되었다. 취직을 전후하여 두아이를 갖는다, 새직장에 적응하랴하여 약2~3년간은 귀국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취직후 3년쯤부터는 집도 마련하게 되었고 직장위치도 안정이 되니 오랫동안 못가본 모국방문의 생각이 간절해져갔다. 이때 생각으로는 한국내의 연구기관과 접촉을 통해 일시 초청을 받아 겸사겸사 모국방문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당시 내가 종사하고 있던 전문분야는 "Prevention of Fracture in Plastic Pipe"로서 당시 이 분야의 국내 연구활동기관과 상호 접촉하는 길도

없었고 물론 일시 초청에 의한 모국방문의 길도 열리지 않았었다.

한편 모국으로부터의 소식은 중화학분야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고 기계공업 분야의 인력난으로 대학 재학생까지 스카웃한다는 소식등이 나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또 각 대학, 연구기관의 책임자들이 내가 살던 Columbus Ohio에도 방문하여 과학자 유치목적으로 모임을 자주 갖게 되어 이기회에 국내연구활동에 관해서도 주의깊게 듣게 되었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관해서도 나의 입장과 연관시켜보면서 관심 있게 들었다.

이제 귀국후 돌이켜 생각컨데 해외 과학자 유치목적의 회합에 자주 참석하여 고국의 실정을 실무자로 부터 전해듣고 나의입장과 자주 비교해 보았던 것이 영구귀국의 직접적인 동기를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최소한 결심하는데 있어 문턱을 낮추어 주는 효과를 주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각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체들의 책임자들이 해외방문시 기회있을때마다 해외과학기술자들을 자주 만나 국내 소요인력에 대한 설명회를 가져 줄것을 원한다.

무표정한듯한 참석자들 마음속으로는 귀하의 말을 듣는동안 수차례 고국을 오고가고 있을테니까.....

취직 4년이 되자 나의 Plastic Pipe 연구활동은 선임자들의 은퇴 및 전직으로 인해 차츰 나의 책임이 커지게 되고 곧 Plastic Pipe 분야의 일을 도맡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이 분야에만 너무 오래 종사하는것이 나의 경력에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나 자신도 전직을 고려하게 되었다.

일단 전직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내생활 전반에 걸친 평가를 해보니, 연령면에서나 당시 내 가정사정으로 보나 귀국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었으며 당시 국내기계공업계의 인력난에 비추어 전망도 좋다고 보았다. 이때 먼저 귀국했던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들의 활동, 처우, 또 만족도를 문의하였던바 대개는 귀국후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인 타진을 위해 우선 학계, 연구소 및 산업계 각기

하나씩 취하여 접촉을 시작하였다.

4. 직장의 선택

일단 영구귀국을 마음먹고 국내 직장에 대해서 알아보려니 흔히 해외에 Recruit 하러오는 연구소 및 대학을 제외한 기타 직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는바가 없었다. 특히 산업계의 대기업의 Job Opening에 관해서는 간접적으로 듣기는 했으나 실제로 알아보려해도 우선 어디에 접촉을 해야할지 알길이 없었다. 국내기관에서 필요시마다 Recruit 목적으로 직접해외에 방문하는것도 좋으나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고급인력의 수급을 위해서 이러한 일방적인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해외인력유치를 위한 전문직업소개소를 두어 국비의 학계, 산업계, 연구소등과 귀국을 희망해오는 해외인력들과의 원활한 중계업무를 담당케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에 科總에 국제협력위원회를 설치했고 또 해외과학기술자유치상담센터라는 것이 설립되었다고 들어 기쁘게 생각되나 적극적인 국내 및 국외 홍보활동을 통해 쌍방에서 널리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다행히 내가 접촉했던 세곳중 두곳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서신교환을 통해본 일의내용과 나의 배경이 부합되는데도 두곳이 비슷하였지만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아직 미개발된 연구소 사정을 고려하여 이곳을 택할 경우 성장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여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4. 이사 전후

직장을 바꾸는 경험이 이혼을 하는 경험 다음으로 정신적 큰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다를 건너 직장을 옮기고 보니 그말에 공감할 수 있었다.

우선 회사일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는데 최소한 3개월이 걸렸다.

초청측에서는 급히 귀국하라는 독촉이 잇달아왔다. 나중에 실제 귀국하여 보니 급한일이 기다리는것도 아닌것을 일단 유치확보의 목적으로 독촉했었다.

영구귀국을 결심한뒤 귀국후의 연구활동에 준

비하여 수집하고 싶은 문헌과 자료들이 많았으나 시일이 촉박하여 모두 복사하여 가져오지 못했음이 지금도 아쉽다.

이삿짐문제로 애로가 많았다. 우선 이사비용의 보조가 적어 자비추가부담일 뿐만 아니라 귀국후 이삿짐을 찾는데 엄청난 세금을 물어 그여파가 추후생활에 큰부담을 주었다. 국내 통관규정에 어두워 낯은 일제 피아노를 팔지않고 가지고 오는 바람에 매입가의 1.5배에 달하는 세금을 물게된것이다.

5. 귀국후의 연구활동

초청기관과의 접촉당시 나의 귀국후 연구활동의 분야에 관해 합의가 있었으므로 독촉에 응하여 급히 귀국하였으나 도착후 발견한것은 일거리가 아니었고 내가 개척해야되는 분야만이 규명되어 있는 상태이었다. 연구시설이나 인원, 자금도 없이 맨손으로 내분야의 일을 구해와서 시작하라니 귀국후 몇달동안은 좌절감에서 상당히 귀국을 후회한적도 많았다. 그러나 차츰 이를 Challenge로 생각하고 이를 극복하기위해 국내실정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용역에 참여하면서 국내업체를 방문도하고 혹은 직접 편지를 내어 견학을 하는 등 국내 기계공업계를 방문하여 내가 참여할수 있는 분야를 탐색하였다. 또한 동창, 선배, 은사들도 찾아다니며 나의 전공분야에 대한 홍보활동도하고 또 그들의 충고도 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예상밖의 업체에서 나의 전공분야에서 관련되는 연구개발을 하고자하여 연구용역을 얻어내기로 하였다. 돌이켜 보건데 귀국

직후 연구용역을 시작할수 없었던것이 유감이었지만 그 기간동안 국내 기계공업계를 방문, 실사하는데 쓴 시간들은 이 업계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컸다고 보며 이제 국내 기계공업계 속에 내가 참여할수 있는 부분을 어렴풋이나마 규명하게 된것 같다.

6. 건의사항

위에서 본인이 귀국을 전후하여 느꼈던점, 애로사항들을 간단히 생각나는대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나의 경험에 비추어 '금후 해외과학기술자 초청에 관해 몇가지 건의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해외과학기술자중 귀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많으나 기회를 만들지 못해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쪽에서 기술인력이 급히 필요할때만 방문 유치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정기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내의 인력 부족을 계속 주지시켜 그들의 관심도를 유지시켜 놓아야한다.

나) 관심있는 해외과학자를 연결시켜 줄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이들의 업무는 적절한 인재를 적재에 소개하는것 뿐만아니라 귀국에 필요한 이사, 통관사무 등의 제반절차에 대한 지원도 맡아주어야 한다.

다) 이미 귀국한 유치과학자의 처우, 그들의 만족도는 곧 귀국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결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해외인력의 유치확보의 노력에만 치우치지 말고 도착후의 생활, 연구활동에 지원을 충실하게 해주기 바란다.

